



새로운 과학관의 등장과 인문학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중의 한 가지는 '눈'을 뜨고 바라볼 때 보이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우리는 사물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안경을 쓰기도 하며, 전문적인 과학자라면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자료로 가설을 세우고 추론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고 다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이 탄생했으며, 또 지금까지 발전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세계이다. 예를 들어 별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망원경으로 별의 위치나 크기를 자세히 관측할 수 있고 안드로메다성과 같이 멀리 있는 별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알폰스 도데의 '별'이나 윌슨의 '별'을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이른바 '인문학적' 세계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과학관·자연과학과 인간과학 구분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동안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엄격하게 구분해 왔다. 자연과학에서는 사물을 바라볼 때 인식의 주관인 자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관찰과 측정의 결과에서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논리적이고 수학적 언어만을 고집해 온 것이다. 갈릴레이가 자연의 언어는 수학적 언어로 쓰여 있다고 언명한 것은 그러한 이념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에서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누군가가 보기 마련이고 그것이 인식의 주체인 나 자신일 수밖에 없음을 구태여 감추려 하지 않는다. 더구나 내가 본 것은 그것이 시든 소설이든 혹은 논문이든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방식을 작위적으로 변형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인문학은 사물을 관찰함에 있어서 인식 주관인 자아가 얼마나 개입하고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글 **엄정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jsunek@hanmail.net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관심이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철학에서 이른바 ‘언어적 전환’이 비트겐슈타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후 언어는 단순히 사물과 현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동적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체의 한 부분임이 밝혀졌다. 196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언어적 전환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과학관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반증주의의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토마스 쿤과 피아이어벤트의 광범위하고도 설득력 있는 비판에 근거하여 새로운 과학관이 점차 설득력을 지니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과학관과 새로운 과학관의 차이를 여러 가지 맥락에서 비교할 수 있지만 헤세가 ‘과학 철학에서의 혁명과 재건’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자연과학을 자아와 언어가 더 많이 개입되는 인간과학과 비교할 때 분명해진다. 그것을 전통적 과학관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연과학에서 경험은 객관적이고 시험해 볼 수 있으며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과학에서는 자료가 이론에서 분리될 수 없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해석이 개입되고 ‘사실’이라는 것도 이 해석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연과학에서 이론은 인위적 구성물이거나 모델이고, 가설-연역 논리적 모델에서 설명을 만들어낸다. 외적인 자연이 어떠한 방식으로 있을 경우 우리는 일정한 자료와 경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학에서는 이론이 사실 자체의 모방적 재구성이고, 바람직한 이론에 대한 기준은 연역적 설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미와 의도의 이해이다.

셋째, 자연과학에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칙관계는 그 관계와 결합된 대상에 대해 외적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에 대해서도 외적인데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과학에서는 연구 대상이 본질적으로 대상들 자신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 관계는 연구자가 승인하거나 부과한 이해의 범주에 의해 창조된다는 의미에서 심리적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내적이다. 넷째, 자연과학의 언어는 엄밀하고 형식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단일하기 때문

에 보편적인 범주를 특수 사례에 적용할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인간과학의 언어는 매우 다의적이고 계속해서 특수 사례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연과학에서 의미는 사실에서 분리된다. 그러나 인간과학에서는 의미가 곧 사실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여기서 자료는 문서, 비문, 의도적 행위, 사회적 규칙, 인간을 만든 인공물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것들은 행위자가 부여한 의미와 분리될 수 없다.

탈경험주의자들의 새로운 과학관

헤세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과학과 인간과학을 이분화 하는 입장은 그동안 강한 비판을 받아서 무력해졌으며, 그 결과 탈경험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과학관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첫째, 자연과학에서의 자료도 이론에서 분리될 수 없다. 자료의 선택은 어떤 이론적 해석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사실이라는 것 그 자체도 어느 특정한 해석의 맥락에서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연과학에서의 이론도 가설·연역적 도식 안에서 자연과 외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이론은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일 뿐이다. 셋째, 자연과학에서 경험이라고 간주된 법칙적 관계도 내적인 관계인데, 여기서 사실로 간주되는 것은 이론들 사이의 내적 관계에서 언급되는 것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넷째, 자연과학의 언어도 매우 은유적이고 엄밀하지 못하다. 더구나 그것은 그동안 전개되어 온 과학사적 현상을 왜곡하거나 자연이 과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구성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식화될 수 없다. 다섯째, 자연과학에서의 의미도 이론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의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과의 대응이 아니라 이론의 정합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헤세는 자연과학에도 해석학적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그는 자연과학과 인간과학에 본질적 긴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해석학적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간과학’은 사회과학을 포함하여 인간과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



함으로써 성립된 과학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 ‘인문학’을 포함시켜서 과학이 결국 시나 소설과 마찬가지로 과학을 문학의 한 장르로 보는 철학자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철학자로 우리는 로티를 꼽을 수 있다.

탈경험주의적 입장을 대표하여 실증주의적 과학관을 거부하는 로티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과학을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과학적 지식은 정신과 언어로부터 독립된 참되고 객관적인 실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행동의 습관을 터득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론 물리학과 문예비평의 차이도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을 한때 신이 차지했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떠받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실용주의의 결과’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실용주의는 문학과 예술을 과학적 탐구와 동일한 발판 위에서 있는 탐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윤리학이 과학적 이론과 비교해서 더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이라고 보지 않으며, ‘과학적’일 필요도 없다고 본다. 물리학은 우주의 다양한 부분의 어느 한 곳에 대처하는 방법이고 윤리학은 다른 곳에 대처하는 방법일 뿐이다.”

과학과 인문학의 엄격한 구분 어려워

사실 로티는 언어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과학이 세계의 그림이 아니라 인간의 우연한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과학과 비과학의 이분법

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학도 대화의 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그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과학의 본질이 밝혀지면 합리성은 일종의 규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모든 문제를 규칙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철학적 전통을 플라톤적 신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신화에 따르면 우리는 소크라테스적인 대화가 아니라 기계적인 절차를 따름으로써 참된 신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비역사적이고 초인간적인 실재의 본질에 관심을 쏟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현실에는 별로 신경을 쏟지 않는다. 이와 같이 로티는 대화적인 것만이 탐구를 이끌어가고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한다. 가령 대상이나 정신, 언어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것은 없으며, 탐구의 출발점도 대화와 동료 인간들일 뿐 선형적인 구조나 능력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과학관은 자연과학과 인간과학, 그리고 인문학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 자연과학도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시도하는 지적 탐구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요소가 개입된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자연과학은 인문학의 한 장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학과 인문학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양자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차이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령 소크라테스적 대화만으로 히포크라테스적 질병을 모두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ST**